

성인 여성의 내현적 자기애와 셀카 중독경향성 간의 관계: 자기대상화 및 자기제시동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Relationship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Selfie Addiction Proneness:
Focused on Mediating Effects of Self-objectification and Self-presentational
Motivation

김재희, 서경현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과

Jae-Hee Kim(reginaj_1005@naver.com), Kyung-Hyun Suh(khsuh@syu.ac.kr)

요약

본 연구는 여성들의 내현적자기애와 셀카 중독경향성 간의 관계에서 자기대상화 및 자기제시동기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성인여성 286명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23.78세(SD=4.34)였다. 분석 결과, 첫째, 내현적 자기애와 자기대상화, 자기제시동기는 각각 셀카 중독경향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둘째, 내현적 자기애와 자기대상화, 자기제시동기는 셀카 중독경향성에 유의한 예언변인이었으며, 이 세 가지 변인들은 셀카 중독경향성의 변량을 25.7% 설명하였다. 특히 셀카 중독경향성에 대한 설명력은 자기제시동기가 가장 높았다. 셋째, 내현적 자기애와 셀카 중독경향성 사이에서 자기대상화가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제시동기 또한 내현적 자기애와 셀카 중독경향성 사이에서 부분매개를 하였다. 본 연구는 셀카 중독경향성의 개념을 정의 내리고 이를 유의하게 설명하는 심리적 변인들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제시하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였다.

■ 중심어 : | 셀카 중독 | 내현적 자기애 | 자기대상화 | 자기제시동기 |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mediating effects of learned helplessness and procrastin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selfie addiction proneness among women. The study subjects were 286 women with a mean age of 23.78(SD=4.34) year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covert narcissism, self-objectification, self-presentational motivation, and selfie addiction proneness. Second, covert narcissism, self-objectification, self-presentational motivation were significant predictors for selfie addiction proneness and they accounted 25.7% for variance of selfie addiction proneness. Especially, self-presentational motivation accounted for selfie addiction proneness the most. Third, mediating effect analysis showed self-objectification had partial mediation effect on the relation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selfie addiction proneness and self-presentational motivation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selfie addiction proneness. It is significant for this study to define the concept of selfie addiction proneness and understand psychological variables which significantly account for it.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suggestions for the future studies were discussed.

■ keyword : | Selfie Addiction | Covert Narcissim | Self-objectification | Self-presentation Motivation |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현대사회에서는 자신을 스스로 표현할 수 있는 이른바 자기 PR 시대가 도래되었으며, 그 중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매체로 SNS(Social Network Service)가 등장하였다. 온라인상에서 타인들과의 소통, 관계 형성, 정보 공유 등을 위한 1인 미디어로써[1], 다양한 관심사와 개인의 개성을 표현하는데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순기능이 있지만[2] 반면에, 과도한 사용에 따른 우울이나 강박 등의 정신적, 신체적 문제를 초래하는 중독의 원인으로 문제가 되기도 한다[3]. SNS 이용자들은 자신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셀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셀카는 셀프카메라(Self-camera)의 줄임말로써 해외에서는 셀피(selfie)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전형적으로 스마트폰이나 웹캠 등을 이용해 스스로의 사진을 촬영하고, 그 사진을 SNS에 업로드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4]. 셀카는 일반사진과는 다르게 자신의 모습을 즉각적으로 확인하면서 사진을 촬영하는 형태로 타인들과 자신의 사진을 공유하고 그들의 반응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많이 사용된다[5]. 셀카가 대중화 되면서 인스타그램에는 'selfie'로 해시태그된 게시물만 2억 건이 넘는 등 SNS에서의 셀카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페이스북, 카카오톡, 트위터 등에 프로필 사진을 설정하도록 하는 기능도 셀카에 영향을 주는 실정이다[6]. 스마트폰으로 인한 SNS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다른 사람들과의 공유 방법으로 셀카가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사진을 찍는 것에 그치지 않고 SNS에 게시하는 것은 셀카에 집착하는 현상이라고 정의되고 있다[7].

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과 매체를 통해 자신의 삶을 SNS 및 온라인상에 적극적으로 노출하게 되었고, 자신의 평판을 관리하거나 관계를 생성 및 유지하고 있다[8][9]. 셀카 어플리케이션은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으로 모두 SNS와 관련이 있었으며[10], SNS 이용률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 이내에 SNS 이용자의 비율은 전체 인구의 65.2%이고, 그 가운데 20대가 91.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11]. 그밖에도 셀카 어플

리케이션의 사용자가 515만 명이며, 그 중 72.2%가 10대에서 20대 여성인 것으로 보이며[12], SNS 이용률이 높은 20대가 셀카 어플리케이션의 주 사용연령임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셀카는 매일 전 세계적으로 18억 장 이상이 업로드 되고 있으며, 셀카를 찍기 위한 부수적인 물품인 셀카봉이나 셀카봉 삼각대, 셀카 렌즈, 셀피드론 등이 유행되는 현상은[13] 셀카가 하나의 소셜 네트워크 문화가 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셀카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문제점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자신의 셀카를 SNS에 올리고 타인의 댓글을 기다리며 즐기는 행위를 셀카 중독이라고 부를 수 있으며, 이는 복잡한 장애로 이어지는 반응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14], 셀카 중독행위를 보이는 사람들은 본인 사진에 대한 타인의 반응에 따라 자신의 외모나 성격을 평가한다고 보고되고 있다[14]. 과도한 셀카로 인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 그리고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행동의 사진을 SNS에 게시하는 등의 여러 부정적인 문제가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15-18]. 여러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여성들이 SNS의 특정 프로필 이미지를 이용하여 시각적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경향이 남성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9-22]. 이에 비해 한국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한 SNS 특정 프로필 이미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본 연구에서는 여성들이 셀카를 과도하게 찍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셀카와 관련된 심리적 성향을 바탕으로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셀카를 찍는 사람들은 SNS에 사진을 게시하면서 타인에게 자신을 내비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SNS 중독경향성과 셀카 행동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예측할 수 있다. SNS 중독경향성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내현적 자기에 수준이 높을수록 SNS 중독경향성이 높다[2]. 내현적 자기에는 자기에 특성이 내면화 되어 타인의 평가나 반응에 민감해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그들은 쉽게 상처를 받으며 친밀한 관계에서만 과시적인 행동을 보이고 웅대한 환상을 나타낸다. 하지만 겉으로는 대개 소심하고 수줍음이 많으며 관심을 자신에게 두면 불안하고 불편해한다[23]. 내현적 자기가 높은 사람들은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결과가

나타났으며[24], 타인으로부터 자신의 자존감과 위협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예민하게 살피는 대인관계를 특징으로 가진다[25]. 타인의 반응에 과도하게 신경을 쓰고 상처를 받거나 거절당하는 것에 매우 민감해하지만, 내면은 자아도취적인 성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내현적 자기에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26], 셀카를 끊임없이 찍고 SNS에 자신의 자신을 빈번하게 게시할 수 있다고 하였다[7].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현실에서 만족되지 못한 욕구를 채우려고 온라인상에서 활발히 활동하며[27],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갖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이상적인 자아를 형성해 자유롭게 나타낼 수 있어 인터넷 중독 가능성이 높다[28]. 내현적 자기가 높은 사람들은 인터넷 보상 경험에 대한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 과도하게 몰입하게 되며[29], 온라인상에서의 자기 과시가 편리하고 타인으로부터의 관심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쉽기 때문에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SNS에 끌리게 될 가능성이 다른 사람들보다 높다[2]. 이들은 사회적 보상을 SNS에서 찾으려고 하는데[30], 높은 자기에 성격을 지닌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SNS 활동을 활발히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31]. 자신의 신체를 지나치게 의식하고 습관적으로 타인과 비교하는 등의 자기대상화 행동을 보이는 것은[32][33] 외모관리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으로 인해 셀카를 찍고 SNS에 사진을 게시하면서 자신에 대한 환경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요소까지도 과시하거나 보여주려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셀카 중독경향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34]. 타인의 관점에서 자신의 신체를 인식하는 자기대상화(Self-Objectification)는 외모에 대한 평가에 초점을 둔 상태로 자신의 외모를 감시하거나 관찰, 통제하는 형태를 보이는데 자기대상화가 높은 사람들의 특성은 우울, 불안, 신체에 대한 수치심 등의 다양한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다[35][36]. 이들은 행동적으로는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체중관리, 옷차림, 화장, 성형수술 등의 외모관리에 몰입하는 경향이 있다[37]. 셀카 중독경향성과 관련된 또 다른 개인적 요인으로는 타인에게 자신이 원하는 인상을 주어야겠다

는 동기인 자기제시동기가 있는데[38], 이는 자존감, 자기 평가, 타인에 의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39]. 자기제시동기는 타인에게 자신의 특정한 모습 및 인상을 자신이 원하는 목적에 맞게 보이고 싶어 하는 동기라고 할 수 있으며, 개인이 사회적 상황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인상은 타인 혹은 사회적인 기준과는 무관하게 결정된다[40]. 이를 통해 사람들은 사회적 관계에서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이 원하는 인상을 주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인간은 사회적 관계 안에 속하고자 하는 동기를 지니며[41],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지각하는지가 자신의 사회생활의 결과를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믿기 때문이다[42]. 타인의 평가를 기대하고 자신을 평가받기 원한다는 측면에서 셀카 중독경향성과의 관련도 예측할 수 있다.

셀카는 자신을 표현하는 데 현대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셀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연구는 해외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셀카 중독경향성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개발하고 이와 관련 있을 것이라고 가정된 심리적 변인인 내현적 자기에, 자기대상화 그리고 자기제시동기와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내현적 자기가 셀카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대상화와 자기제시동기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내현적 자기에와 자기대상화, 자기제시동기 및 셀카 중독경향성 간의 상관관계가 있는가?
- 둘째, 내현적 자기에와 자기대상화, 자기제시동기가 셀카 중독경향성을 설명하는 유의한 예언변인인가?
- 셋째, 자기대상화와 자기제시동기가 내현적 자기에와 셀카 중독경향성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수도권 지역의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자기 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온라인 설문지는 여성을 구별하기 위한 질문을 추가하여 179부, 오프라인 143부 총 322부가 회수되었지만, 불성실한 응답 36부를 제외한 286명의 응답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 시 연구의 목적 및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이에 동의할 경우 설문이 진행되도록 하였다. 연구에 참여하는 도중에도 언제든지 참여를 포기할 수 있음을 알렸으며, 연구목적 외에는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을 것임을 상기시켰다. 연구대상자의 연령분포는 만 18세에서 39세였으며, 연령 평균은 23.78세 ($SD=4.34$)였다.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과 SNS 사용에 관련된 정보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연구 대상자 중 현재 사용하고 있는 SNS가 ‘없다’라고 보고한 사람이 5명(1.7%), 1개에서 2개가 167명(58.74%), 3개에서 5개가 111명(38.8%), 5개 이상이 3명(1%)이었다. SNS를 주로 언제 확인하는지 알아본 결과 ‘거의 하지 않는다’고 보고한 사람이 20명(7%)이었으며, 특정한 시간에만 확인하는 사람이 22명(7.7%), 할 일이 없을 때 확인하는 사람이 151명(52.8%), SNS 알람이 오면 확인하는 사람이 31명(10.8%), 수시로 확인하는 사람이 62명(21.7%)이었다. 또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SNS 확인을 자주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가 104명(36.4%), ‘약간 그렇다’가 61명(21.3%), ‘보통이다’ 75명(26.2%), ‘약간 그렇다’ 40명(14%), ‘매우 그렇다’ 6명(2.1%)이었다. 1일 SNS 사용시간으로는 1시간미만이 67명(23.4%), 1시간에서 2시간이 84명(29.4%), 2시간에서 3시간이 81명(28.3%), 3시간에서 5시간이 38명(13.3%), 5시간이상이 16명(5.6%)이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진 보정용 어플리케이션의 수는 ‘없다’가 40명(14%), 1개에서 2개 165명(58%), 3개에서 5개가 63명(22%), 5개 이상이 17명(5.9%)이라고 보고하였다. 이들 중 셀카를 찍을 때 휴대폰 카메라를 사용하는 이는 258명(90.2%), DSLR 21명(7.3%), 셀카용 카메라 7명(2.4%)이었다. 사용하는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수를 조사한 결과 기본카메라만 사용하는 사람이 27명(7.4%), 1개에서 2개가 144명(50.3%), 3개에서 5개가

94명(32.9%), 5개 이상이 20명(7%)이었으며 SNS에 사진을 업로드하는 빈도는 거의 매일이 13명(4.5%), 일주일에 3회 18명(6.3%), 일주일에 1회 61명(21.3%), 한 달에 한번 106명(37.1%), 설정하지 않는 사람이 88명(30.8%)이었다.

표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SNS 사용 (N=286)

구분	빈도	백분율(%)	
연령대	25세 미만	172	60.1
	25~29세	87	30.4
	30세 이상	27	9.4
사용하는 SNS 수	없다	5	1.7
	1~2개	167	58.4
	3~5개	111	38.8
	5개 이상	3	1.0
주로 SNS를 확인하는 때	거의 하지 않음	20	7.0
	특정한 시간대에만 확인	22	7.7
	할 일이 없을 때 확인	151	52.8
	SNS 알람이 오면 확인	31	10.8
	수시로 확인	62	21.7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SNS 확인	전혀 그렇지 않다	104	36.4
	약간 그렇지 않다	61	21.3
	보통이다	75	26.2
	약간 그렇다	40	14.0
	매우 그렇다	6	2.1
1일 SNS 사용시간	1시간 미만	67	23.4
	1~2시간	84	29.4
	2~3시간	81	28.3
	3~5시간	38	13.3
	5시간 이상	16	5.6
사진 보정용 어플리케이션 수	없다	40	14.0
	1~2개	166	58.0
	3~5개	63	22.0
	5개 이상	17	5.9
주로 사용하는 셀카용 카메라	휴대폰 카메라	258	90.2
	DSLR	21	7.3
	셀카용 카메라	7	2.4
사용하는 셀카용 어플리케이션 수	기본카메라 사용	27	9.4
	1~2개	144	50.3
	3~5개	94	32.9
	5개 이상	20	7.0
SNS 업로드 빈도	거의 매일	13	4.5
	일주일에 3회	18	6.3
	일주일에 1회	61	21.3
	한 달에 한번	106	37.1
설정하지 않음	88	30.8	

2. 연구 도구

2.1 내현적 자기에

내현적 자기애를 측정하기 위해 Akhtar와 Thomson (1982)의 자기애적 성격장애의 임상적 특성 척도를 강선희와 정남운(2002)이 재구성한 내현적 자기애에 영향

척도(Covert Narcissism Scale; CNS)를 사용하였다 [23][43]. 하위요인으로는 목표불안정, 인정욕구 및 거대자기 환상, 착취 및 자기중심성, 과민 및 취약성, 소심 및 자신감 부족이다. 총 45문항의 5점 Likert식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항상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과 거리가 먼 목표불안정, 과민 및 취약성을 제외한 세가지 요인 즉, 사람들에게 주목받으며 매사에 뛰어나고자 하는 욕구와 명예나 힘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를 나타내는 인정욕구 및 거대자기 환상(9문항), 착취적인 대인관계와 특권 의식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모습들을 반영한 착취 및 자기중심성(9문항), 내향적이며 자신감이 부족한 소심 및 자신감 부족(8문항) 총 26문항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인정욕구 및 거대 자기 환상은 내현적 자기에 척도의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88로 나타났다.

2.2 자기대상화

Mckinley와 Hyde(1998)가 개발한 객체화된 신체 의식 척도(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Scale; OBCS)를 김완석, 유연재, 박은아(2007)가 한국판으로 번안하였다[44][45]. 자신의 신체를 타인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사회적 기준에 자신을 맞추으로써 타인의 평가를 피하려는 신체감시성, 사회문화적으로 요구되는 이상적인 모습에 자신의 신체가 적합하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적합하지 않으면 수치심을 느끼는 신체수치심, 신체감시성 및 신체수치심과 부적상관을 나타내는 요인으로 사회적 기준에 따른 외모를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통제신념이 각각 8문항으로 총 24문항으로 이루어진 이 척도는 6점 Likert식 척도로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6점 '항상 그렇다'로 평정하며, 많은 경험적 연구에서 신체감시성과 신체수치심을 자기대상화의 주요개념으로 보고 있어, 본 연구에서 또한 신체감시성과 신체수치심으로 자기대상화를 측정하였다. 신체감시성에 대한 문항은 역채점하였으며,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83으로 나타났다.

2.3 자기제시동기

김남재(1998)가 Leary와 Kowalski(1995)의 자기제시 이론에 근거하여 개발한 자기제시동기 척도(Self-Presentation Motivation Scale; SPMS)를 사용하여 대인관계상황에서 타인에게 좋은 평가나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를 측정하였다[42][46]. 자기제시동기는 타인에게 자신의 특정한 모습 및 인상을 자신이 원하는 목적에 맞게 보이고 싶어 하는 동기라고 할 수 있으며, 개인이 사회적 상황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인상은 타인 혹은 사회적인 기준과는 무관하게 결정된다[40]. 총 27문항의 5점 Likert식 척도로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며 단일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96으로 높게 나타났다.

2.4 셀카 중독경향성

셀카 중독경향성 척도개발을 위하여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 DSM) 제 5판(APA, 2015)의 행위중독 진단기준을 반영하여 집착, 내성, 금단, 조절, 실패, 현실도피, 현실적응실패, 거짓말 등의 문항을 구성하였다[47]. Griffiths(2005)가 제시한 현저성, 기본조절, 내성, 금단, 갈등, 재발의 6가지 하위요인을 기반으로 구성된 이종환, 임종민, 손한백,곽호완, 장문선(2014)의 행동중독 준거기반 스마트폰 중독척도와 조성현, 서경현(2013)이 개발한 SNS 중독경향성척도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셀카 중독경향성 척도 문항을 선별 및 구성하였다[48-50]. 본 연구자가 속한 대학교의 중독 관련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며 임상심리사 자격을 소유한 상담심리 박사 과정생 2명과 석사 과정생 1명, 셀카에 관심이 많은 학부생 10명을 대상으로 표적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을 실시하였다. 표적집단면접에 참여한 대학원생 3인이 예비문항 32개에 대해 척도 목적에 맞는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으며, 그 후 문항들의 문맥이나 내용의 적절성을 교수 2인에게 검토 받아 문항을 결정하였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최종 24문항을 셀카 중독경향성 척도라고 명명하여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은 의존 및 남용과

정서고양 및 만족추구이며, 각 문항은 5점 Likert식 척도로 1점 ‘거의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94로 나타났다.

3. 분석 방법

자료의 분석은 SPS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셀카 중독경향성 척도에 대한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을 실시하였으며,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주요 연구 변수 간의 관계는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분석을 하였고, 성인 여성들의 셀카 중독경향성을 설명하는 예언변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내현적 자기기애와 셀카 중독경향성간의 관계에서 자기대상화와 자기제시 동기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셀카 중독경향성의 구성타당도 검증

셀카 중독경향성 예비문항에 대한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KMO(Kaiser-Meyer-Olkin)의 표본적절성 측정치를 구하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통계치를 산출하여 적합도 검사를 진행하였으며, 많은 연구에서 KMO값이 .70 이상이면 요인분석에 적합한 표본을 간주하는데, 본 연구에서 셀카 중독경향성의 KMO 값은 .94로 나타나 요인분석에 적합하다고 보았다. 변인들의 상관행렬이 단위행렬(Identity matrix)이라는 귀무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Bartlett의 구형성 검증을 실시하는데,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결과 $\chi^2(276)$ 이 3794.98($p < .001$)로 나타나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요인분석을 위한 가정을 충족하였다. 셀카 중독경향성 척도를 구성하는 각 문항들의

표 2. 셀카 중독경향성 문항의 요인분석

(N=286)

문항	요인		R^2
	1	2	
셀카를 찍지 않으면 왠지 모르게 찝찝하고 계속 생각이 난다.	.552		.487
나는 스스로 셀카에 중독되어 가고 있는 것을 느낀다.	.467		.477
셀카를 찍고 싶은데 찍지 못하면 화가 난다.	.536		.363
나는 셀카를 찍느라 버스나 지하철을 놓친 적이 있다.	.723		.455
다른 사람들과 대화 중에도 끊임없이 셀카를 찍는다.	.758		.633
나는 시도 때도 없이 셀카를 찍는다.	.717		.581
나는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셀카를 찍으면서 보낸다.	.804		.570
셀카가 없다면 내 인생에 재밌는 일은 없을 것이다.	.683		.534
나는 셀카를 찍지 않으려 하지만 어느 순간 셀카를 찍고 있는 나를 발견한다.	.688		.630
내가 셀카를 찍을 때 주변사람들이 방해하거나 성가시게 하면 화가 난다.	.534		.410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 셀카를 찍은 적이 있다.	.631		.442
셀카 사용 때문에 업무시간이나 수업시간에 집중을 하지 못한다.	.831		.562
나는 셀카를 찍는 것에 시간을 많이 소요하는 것을 숨긴 적이 있다.	.725		.500
최근 셀카에 대한 반응이 좋지 않으면 예전과 같은 반응을 얻을 때까지 셀카에 집중 할 것이다.		.504	.433
나는 단지 기분전환을 하기 위해 셀카를 찍은 적이 있다.		.690	.460
나는 분위기 있는 식당이나 카페에 가면 셀카를 많이 찍는다.		.794	.644
내가 셀카를 많이 찍는 이유는 소장하기 위해서이다.		.756	.492
셀카를 찍으면 스트레스가 해소된다.		.499	.548
나는 새로운 변화(예: 외모, 환경 등)가 있을 때마다 셀카를 찍는다.		.866	.633
나는 나의 셀카를 보고 위안을 얻을 때가 있다.		.457	.529
나는 셀카로 나의 모습을 남기는 것이 좋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셀카를 찍는다.		.626	.594
나의 셀카가 이전 사진보다 예쁘지 않다고 느껴지면 예쁘게 나올 때까지 찍는다.		.679	.542
나는 날씨가 좋거나 기분이 좋을 때 셀카를 찍어야겠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576	.591
셀카를 찍었을 때 결과가 마음에 들 때까지 반복해서 찍는다.		.721	.570
Eigenvalues(고유값)	10.238	2.441	
Percent of Variance(분산비율)	42.658	10.170	
Cumulative Percent of Variance(누적 분산비율)	42.658	52.828	
Cronbach's α	.911	.920	

침도와 왜도를 분석한 결과 정규성을 가정할 수 있었으므로 요인분석의 추출방법은 주성분 분석을 이용하였으며, 요인 간 상관성이 기대되므로 직접 오블리민 방식의 사각회전방법을 사용하였다. 고유값(Eigenvalue)이 1이상인 요인 수를 기준으로 스크리 도표를 참고하여 셀카 중독경향성의 요인 수를 2요인으로 결정하였다. 요인 부하량이 .40이상인 문항을 기준으로 각 요인을 설정하였으며 셀카 중독경향성 척도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셀카 중독경향성의 문항내용을 바탕으로 하위 척도를 각각 ‘의존 및 남용’, ‘정서고양 및 만족 추구’로 명명하였다. 1요인으로 추출된 ‘의존 및 남용’은 ‘다른 사람들과 대화 중에도 끊임없이 셀카를 찍는다’, ‘나는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셀카를 찍으면서 보낸다’, ‘셀카 사용 때문에 업무시간이나 수업시간에 집중을 하지 못한다’와 같이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을 정도로 셀카 촬영에 의존하고 몰입하는 행동을 반영하는 1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요인은 ‘나는 단지 기분전환을 하기 위해 셀카를 찍은 적이 있다’, ‘나는 나의 셀카를 보고 위안을 얻을 때가 있다’와 같이 자신의 만족감이나 기분전환을 위해 셀카를 찍거나,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 셀카를 반복적으로 찍고 SNS에 게시하는 행동을 측정할 수 있는 11문항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정서고양 및 만족 추구’로 명명하였다.

2. 내현적 자기애와 자기대상화, 자기제시동기 및 셀카 중독경향성 간의 관계

내현적 자기애와 자기대상화, 자기제시동기 및 셀카 중독경향성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3]와 같다. 상관관계분석에 앞서 연구변수들의 정규성 가정을 점검하기 위해 왜도와 침도 값을 분석한 결과 왜도는 -.27에서 1.77이었으며, 침도는 -.99에서 2.70으로 절대값 3이 넘지 않았으므로 정규성을 가정할 수 있었다. 내현적 자기애는 자기대상화($r=.34, p<.05$)와 하위 요인인 신체감시성($r=.16, p<.01$), 신체수치심($r=.38, p<.001$) 그리고 자기제시동기($r=.50, p<.001$)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었다. 내현적 자기애의 하위 요인인 인정욕구 및 거대자기 환상은 자기대상화($r=.37, p<.001$)와 하위요인인 신체감시성($r=.24, p<.001$), 신체수치심($r=.35, p<.001$)과도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자기제시동기($r=.61, p<.001$)와도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착취 및 자기중심성은 자기대상화($r=.24, p<.001$)와 하위요인인 신체수치심($r=.33, p<.001$), 자기제시동기($r=.29, p<.001$)에서는 정적 상관을 보였지만 신체감시성($r=.05, n.s$)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소심 및 자신감 부족은 자기대상화($r=.19, p<.01$)와 하위요인인 신체수치심($r=.20, p<.001$) 그리고 자기제시동기($r=.27, p<.001$)에서는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 신체감시성($r=.10, n.s$)에서는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표 3. 내현적 자기애와 자기대상화, 자기제시동기 및 셀카 중독경향성 간의 상관행렬

(N=286)

변인	(1)	(1-1)	(1-2)	(1-3)	(2)	(2-1)	(2-2)	(3)	(4)	(4-1)	(4-2)
(1)내현적자기애											
(1-1)인정욕구 및 거대자기 환상	.85***										
(1-2) 착취 및 자기중심성	.80***	.64***									
(1-3) 소심 및 자신감부족	.70***	.36***	.24***								
(2)자기대상화	.34***	.37***	.24***	.19**							
(2-1)신체감시성	.16**	.24***	.05	.10	.79***						
(2-2)신체수치심	.38***	.35***	.33***	.20***	.83***	.31***					
(3)자기제시동기	.50***	.61***	.29***	.27***	.58***	.50***	.44***				
(4)셀카 중독경향성	.37***	.41***	.36***	.12*	.42***	.29***	.38***	.43***			
(4-1)의존 및 남용	.35***	.33***	.38***	.13*	.30***	.14**	.34***	.27***	.86***		
(4-2)정서고양 및 만족추구	.33***	.40***	.29***	.10	.43***	.34***	.36***	.48***	.95***	.65***	

자기대상화는 자기제시동기($r=.58, p<.001$)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하위요인인 신체감시성과 자기제시동기에서($r=.50, p<.001$), 신체수치심과 자기제시동기($r=.44, p<.001$)에서도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3. 셀카 중독경향성에 대한 내현적 자기애, 자기대상화, 자기제시동기의 설명력

내현적 자기애 및 자기대상화의 하위요인과 자기제시동기 중 어떠한 심리적 요인이 셀카 중독경향성에 더 큰 영향력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고,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 셀카 중독경향성에 대한 주요변인과 하위요인들의 단계적 회귀분석 (N=286)

	모형 I		모형 II		모형 III		모형 IV		VIF
	B	β	B	β	B	β	B	β	
상수	17.00		6.38		5.22		-1.37		
자기제시동기	.35	.43***	.29	.36***	.23	.29***	.19	.24***	1.56
착취 및 자기중심성			.74	.25***	.63	.22***	.68	.23***	1.17
신체수치심					.38	.17**	.33	.15*	1.43
신체감시성							.32	.13*	1.28
R^2 (ΔR^2)	.188		.246(.058)		.266(.020)		.279(.013)		
F	65.67***		46.07***		34.10***		27.14***		

* $p<.05$, ** $p<.01$, *** $p<.001$.

모형 I 에 제시했듯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예언변인은 자기제시동기이며 설명량은 18.8%로 유의한 수준이었다($R^2=.188, F=65.67, p<.001$). 자기제시동기는 셀카 중독경향성에 유의한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43, p<.001$). 자기제시동기를 통제한 후 착취 및 자기중심성이 투입된 모형 II의 설명량은 5.8%가 증가한 24.6%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고($R^2=.246, F=46.07, p<.001$), 착취 및 자기중심성 역시 셀카 중독경향성에 강한 정적영향을 보였다($\beta=.25, p<.001$). 모형 III에서 신체수치심을 투입한 결과, 설명량은 2%가 증가한 26.6%로 유의하였고($R^2=.266, F=34.10, p<.001$), 신체수치심은 셀카 중독경향성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beta=.17, p<.01$). 마지막으로 모형 IV에서 신체감

시성이 투입된 결과, 설명량은 1.3% 증가한 27.9%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으며($R^2=.279, F=27.14, p<.001$), 신체감시성은 성인 여성의 셀카 중독경향성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beta=.13, p<.05$). 회귀분석 결과 성인 여성의 셀카 중독경향성은 자기제시동기가 높을수록, 내현적 자기애의 하위요인인 착취 및 자기중심성이 높을수록 높아지며, 자기대상화의 하위요인인 신체수치심과 신체감시성이 높을수록 셀카 중독경향성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내현적 자기애와 셀카 중독경향성 간의 관계에서 자기대상화의 매개효과

내현적 자기애와 셀카 중독경향성 간의 관계에서 자기대상화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내현적 자기애(A)는 셀카 중독경향성(C)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자기대상화(B)도 유의하게 설명하였으며, 자기대상화(B)가 셀카 중독경향성(C)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내현적자기애(A)와 자기대상화(B)의 상관이 유의하였기 때문에 중재라기보다는 매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컸으며, 이에 대한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 내현적 자기애가 셀카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대상화의 매개효과 (N=286)

독립변인	종속변인	R^2	ΔR^2	β
내현적자기애(A)	자기대상화(B)	.116		.34***
내현적자기애(A)	셀카 중독경향성(C)	.139		.37***
내현적자기애(A)	셀카 중독경향성(C)	.234	.050	.26***
자기대상화(B)			.095	.33***

*** $p<.001$.

분석결과, A → C에서 내현적 자기애(A)의 설명량보다 A, B → C에서 A의 추가 설명량이 13.9%($R^2=.139$)에서 8.9%로 줄었고 자기대상화(B)의 추가 설명력도 유의하였다($\beta=.33, p<.001$). A, B → C에서의 내현적 자기애의 설명량이 줄어들었지만,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기 때문에 내현적 자기애와 셀카 중독경향성 사이에서 자기대상화가 부분적으로 매개한다고 할 수 있다

(Baron & Kenny, 1986)[51]. Sobel 검증에서도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Z=3.59, p<.001$). 내현적 자기애가 셀카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대상화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모형을 도식화하여 [그림 1]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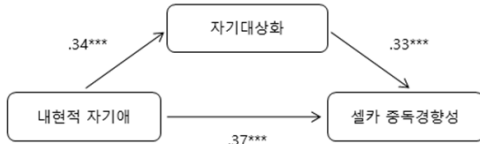


그림 1. 내현적 자기애가 셀카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대상화의 매개효과

5. 내현적 자기애와 셀카 중독경향성 간의 관계에서 자기제시동기의 매개효과

내현적 자기애와 셀카 중독경향성 간의 관계에서 자기제시동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내현적 자기애(A)는 셀카 중독경향성(C)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자기제시동기(B)도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또한, 자기제시동기(B)가 셀카 중독경향성(C)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내현적자기애(A)와 자기제시동기(B)의 상관이 유의하였기 때문에 중재라기 보다는 매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커 이를 검증하였고, 분석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 내현적 자기애가 셀카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제시동기의 매개효과(N=286)

독립변인	종속변인	R^2	ΔR^2	β
내현적자기애(A)	자기제시동기(B)	.250	.50***	
내현적자기애(A)	셀카 중독경향성(C)	.139	.37***	
내현적자기애(A)	셀카 중독경향성(C)	.032	.21**	
자기제시동기(B)	셀카 중독경향성(C)	.081	.33***	

p<.01, *p<.001.

분석결과, A → C에서 내현적 자기애(A)의 설명량보다 A, B → C에서 A의 추가 설명량이 13.9%($R^2=.139$)에서 10.7%로 줄었고 자기제시동기(B)의 추가 설명력

도 유의하였다($\beta=.33, p<.001$). A, B → C에서의 내현적 자기애의 설명량이 줄어들었지만,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기 때문에 내현적 자기애와 셀카 중독경향성 사이에서 자기제시동기가 부분적으로 매개한다고 할 수 있다[51]. Sobel 검증에서도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Z=4.68, p<.001$), 내현적 자기애가 셀카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제시동기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모형을 도식화하여 [그림 2]에 제시하였다.



그림 2. 내현적 자기애가 셀카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제시동기의 매개효과

IV. 논의

최근 사람들은 자신이 타인에게 어떻게 인식되는지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SNS 프로필 사진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으며,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은 외형적으로 이상적인 모습의 사진을 촬영하여 게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배경을 고려하여 셀카 중독경향성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였으며, 타인에게 드러내 보이려는 욕구와 관련이 있는 내현적 자기애, 자기대상화 및 자기제시동기와의 관계를 분석하였고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내현적 자기애, 자기대상화, 자기제시동기는 각각 셀카 중독경향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선행연구에서는 셀카와 관련된 행동들과 셀카를 게시하는 빈도는 자기애 성향과 정적 상관이 있고, 셀카는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도구로서 자기애 성향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설명하였으며[52][53], 여성들 사이에서 셀카 행동과 자기애는 정적 상관이 있다는 보고도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해준다[54]. 하지만, 내현적 자기애의 하위요인인 소심 및 자신감부족과 셀카 중독

경향성의 하위요인인 정서고양 및 만족 추구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향적이고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들은 셀카를 SNS에 업로드하는 것으로 만족스러운 감정을 느끼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특성의 사람들이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부정적 사고를 가진 경우, 오히려 자신의 셀카를 업로드 함으로써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가능성도 있다. 자기대상화가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사진을 촬영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55][56], SNS에서 여성들이 셀카를 통해 자기대상화를 하며 스스로 매력적임을 드러내고 싶어한다는 결과가 있었다[57][58]. 이는 자기대상화와 셀카 중독경향성의 상관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자기 대상화가 높은 사람은 타인에게 비취지는 자신의 모습에 민감하기 때문에 셀카를 끊임없이 찍고, SNS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타인에게 확인받으려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자기제시동기의 특성이 타인에게 자신이 원하는 인상을 주어야겠다는 동기라는 것을 고려해볼 때[42], 셀카를 SNS에 업로드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타인의 반응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SNS 상에서 자신의 셀카를 노출하며 이전보다 나은 사진을 위해 중독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SNS 사진에 대한 타인의 평가를 스스로 비교하면서 전시되는 자기와 감시당하는 자기에서의 경계를 넘나든다는 결과가 나타났으며[59], SNS 프로필 사진은 자기 이미지를 제시하고 타인의 인식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여러 선행연구들은 자기제시동기와 셀카 간의 관계를 입증하였다[19][60-62]. 이는 본 연구결과와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 자기대상화 및 자기제시동기가 셀카 중독경향성에 대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예언변인이었고, 약 26%의 변량을 공유하였다. 특히 단계적 회귀분석에서 셀카 중독경향성에 대한 유의한 예언변인으로서 자기제시동기가 18%이상을 설명하였고, 추가적으로 내현적 자기애의 하위요인인 착취 및 자기중심성 그리고 자기대상화의 하위요인인 신체수치심, 신체감시성 순으로 셀카 중독경향성에 대한 설명력을 나타냈다. 이는 셀카 행위가 SNS 프로필을 통해 타인의 시선에 대한 민감도와 자기노출에 대한 태도로 나누어 보고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으며[59], 셀카와 자기애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와도 관련이 있다[20][21][56]. 이를 통해 내현적 자기애가 높은 사람들은 겉모습과는 달리 내적으로 타인의 인정을 갈망하고 자신을 과대평가하면서 온라인상에서 자기표현을 셀카로 지정하면서 이러한 욕구들을 채우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인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내현적 자기애와 셀카 중독경향성 간의 관계에서 자기대상화가 부분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경로에서 자기제시동기는 내현적 자기애와 셀카 중독경향성 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내현적 자기애가 높을수록 셀카 중독경향성을 높이는데 직접적인 영향이 있고, 같은 경로에서 자기대상화와 자기제시동기가 각각 간접적인 영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SNS에 셀카를 업로드하면서 타인의 반응을 통해 외모관리를 하는 것은 자기대상화의 하위요인인 신체감시 행동에 해당한다[22][63]. 따라서 이러한 결과들은 내현적 자기애와 셀카 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자기대상화가 부분 매개한다는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SNS에 셀카를 업로드하면서 자기대상화 의식에 대한 욕구를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하루에도 여러 번 사진을 찍고 보정하며 시간을 보내는 행동이 어느 새 중독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 자신을 가장 잘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SNS에 사진을 업로드하는 것이라는 선행연구가 있었으며[64], 실제로 SNS 사용자들이 자신의 이미지를 위해 많은 시간적, 경제적 투자를 한다는 결과와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65].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설문지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러나 편의 표집으로 인해 서울 지역 여성들의 응답이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연구결과에 대한 신중한 해석이 요구된다. 따라서 다양한 지역의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재검증하거나 남성을 포함한 셀카 중독에 대한 후속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의 셀카 중독경향성 척도는 대학교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표적집단면접을 통해 문항을 구

축하였기 때문에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척도의 타당화 작업이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셀카 중독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행위중독임을 인지하고 지속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며, 이를 중재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성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셀카 중독경향성을 가진 사람들의 특성을 살펴보고, 셀카 중독경향성에 따른 내현적 자기애와 자기대상화, 자기제시동기의 관계를 알아보았으며, 셀카 중독경향성을 설명하는 예언변인인 자기대상화와 자기제시동기가 내현적 자기애 사이에서 부분 매개하는 것을 밝혔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참 고 문 헌

- [1] 한국정보화진흥원, 2012년 정보문화실태조사 보고서, 2013.
- [2] 김선미, 서경현, “내현적 자기애와 SNS 중독경향성 간의 관계: 경험회피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제20권, 제3호, pp.587-603, 2015.
- [3] 오윤경, SNS중독경향성과 외로움, 우울, 대인관계, 사회적 지지의 관계,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4] Oxford Dictionaries, <https://www.oxforddictionaries.com>, 2013.
- [5] 김은솔, 반영환, “셀프카메라에서의 제스처 인터랙션에 관한 연구,” 디지털디자인학연구, 제15권, 제2호, pp.267-276, 2015.
- [6] 안서연, *셀프카메라(Self-Camera) 행위가 20대 여성들의 외모 존중감 자기노출 욕구, 외모개선 욕구 및 사회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프로테우스 효과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 [7] 윤슬기, *대학생의 자존감, 자기애 및 우울이 셀카 집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신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 [8] 김종길, “아바타와 청소년의 사이버정체성 발달. 청소년학연구,” 제11권, 제2호, pp.185-215, 2004.
- [9] 노기영, “개인 웹페이지 표현양식에 대한 자아의식의 효과,” 한국언론학보, 제46권, 제2호, pp.279-309, 2002.
- [10] <http://www.ajunews.com/view/20160614151344538>, 2016.6.14
- [11] 한국인터넷진흥원, 2016 인터넷이용실태조사, 2016.
- [12] <http://www.data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390>, 2016.8.30.
- [13] <http://www.reader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0057>, 2017.2.15.
- [14] S. Singh and K. M. Tripathi, “Selfie: A New Obsession,” Available from https://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2920945, 2016.
- [15] <http://news.join.com/article/21240576>, 2017.2.10.
- [16] <http://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710601033>, 2015.7.11.
- [17] <http://www.reader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0057>, 2017.2.7.
- [18]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70805001400038/?did=1825m>, 2017.8.5.
- [19] A. Siibak, “Constructing the self through the photo selection-visual impression management on social networking websites,” *Cyberpsychol: J. Psychosoc. Res. Cyberspace, Vol.3, No.1*, Available from <http://www.cyberpsychology.eu/view.php?cisloclanku=2009061501>>, 2009.
- [20] P. Sorokowski, A. Sorokowska, A. Oleszkiewicz, T. Frackowiak, A. Huk, and K. Pisanski, “Selfie posting behaviors are associated with narcissism among me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85*, pp.123-127, 2015.
- [21] E. B. Weiser, “# Me: Narcissism and its facets

- as predictors of selfie-posting frequenc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86, pp.477-481, 2015.
- [22] M. Tiggemann and A. Slater, “Net Girls: The Internet, Facebook, and body image concern in adolescent girls,”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Vol.4, No.6, pp.630-633, 2013.
- [23] 강선희, 정남운, “내현적 자기에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4권, 제4호, pp.969-990, 2002.
- [24] P. Rose, “The happy and unhappy faces of narciss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33, pp.379-391, 2002.
- [25] 박은화, *내현적 자기에 성향, SNS 사용,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가톨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 [26] 류경희, 홍혜영, “중학생의 외현적, 내현적 자기와 스마트폰 중독간의 관계: 공격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제21권, 제8호, pp.157-183, 2014.
- [27] 이계정, 정남운, “내현적 자기에 성격성형과 인터넷 보상경험이 인터넷 과다사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9권, 제1호, pp.55-69, 2007.
- [28] 황상민, 한규석, *사이버 공간의 심리*, 서울: 박영사, 1999.
- [29] 장윤지, *내현적 자기가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대인관계 어려움의 매개효과*, 건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 [30] D. J. Kuss and M. D. Griffiths, “Online social networking and addiction—a review of the psychological literature,”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Vol.8, No.9, pp.3528-3552, 2011.
- [31] J. Brailovskaia, and H. W. Bierhoff, “Cross-cultural narcissism on Facebook: Relationship between self-presentation, social interaction and the open and covert narcissism on a social networking site in Germany and Russia,” *Computers in Human Behavior*, Vol.55, pp.251-257, 2016.
- [32] 김은혜, *대상화요인이 청소년의 외모만족도, 자아개념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백석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 [33] 노은실, *청소년의 자기대상화와 자아존중감이 성적자기주장에 미치는 영향*SNS이용행태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 [34] 김운, 황선진, “사회문화적 압력과 대상화된 신체의식이 성인여성의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복식학회*, 제58권, 제10호, pp.112-122, 2008.
- [35] 손은정, “공적 자기의식, 신체에 대한 감시, 신체에 대한 수치심이 섭식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9권, 제3호, pp.735-750, 2007.
- [36] B. L. Fredrickson and T. A. Roberts, “Objectification theory: Toward understanding women’s lived experiences and mental health risk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Vol.21, No.2, pp.173-206, 1997.
- [37] C. A. McConnell, *An object to herself: the relationship between girls and their bodies*,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2000.
- [38] 김남재, “자기제시 동기와 대인 간 평가가 사회 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제23권, 제3호, pp.677-695, 2004.
- [39] 강진화, *자기제시동기 및 자기제시기대가 사회 불안에 미치는 영향 자의식의 매개효과 검증*, 성신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40] 구세정,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대인 불안에 미치는 영향* 거부민감성, 자기제시동기의 매개효과, 서울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논문, 2016.
- [41] R. F. Baumeister and M. R. Leary, “The need to belong: desire for interpersonal attachments as a fundamental human motivation,”

- Psychological Bulletin, Vol.117, No.3, pp.497-529, 1995.
- [42] M. R. Leary and R. M. Kowalski, *The self-presentation model of social phobia. Social phobia: diagnosis, assessment, and treatment*, pp.94-112, New York: Guilford Press, 1995.
- [43] S. Akhtar and J. A. Thomson, "Overview: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Vol.139, No.1, pp.12-20, 1982.
- [44] N. M. Mckinley and J. S. Hyde, "The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Vol.20, No.2, pp.181-215, 1998.
- [45] 김완석, 유연재, 박은아, "한국판 객체화 신체의식 척도(K-OBCS): 개발과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제26권, 제2호, pp.329-349, 2007.
- [46] 김남재, *대인불안에 대한 자기제시 동기와 자기제시 기대간의 관계*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 [47]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5판*, 권준수 외 공역, 서울: 학지사, 2015.
- [48] M. Griffiths, "A 'components' model of addiction within a biopsychosocial framework," *Journal of Substance Use*, Vol.10, No.4, pp.191-197, 2005.
- [49] 이종환, 임종민, 손한백, 곽호완, 장문선, "행동중독 준거기반 스마트폰 중독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28권, 제2호, pp.425-443, 2014.
- [50] 조성현, 서경현, "SNS 중독경향성 관련 요인 탐색: 내현적 자기애, 자기제시 동기 및 소외감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제18권, 제1호, pp.239-250, 2013.
- [51] R. M. Baron and D. A. Kenny, "The moderator - 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1, No.6, pp.1173-1182, 1986.
- [52] 이은지, 이정아, 성용준, "자기애와 자기홍보행위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자료집*, pp.426-426, 2015.
- [53] 신상기, "욕망의 시각화, 셀프카메라(셀카)의 나르시시즘," *디지털디자인학연구*, 제14권, 제1호, pp.533-541, 2014.
- [54] R. M. Amurao and E. Castronuevo, "Selfie Behavior and Narcissism among selected Females," *THE BEDAN JOURNAL OF PSYCHOLOGY*, Vol.1, pp.24-33, 2016.
- [55] 안서연, 김정현, "셀프카메라(Self-Camera) 행위가 20대 여성들의 외모 존중감, 자기노출 욕구, 외모개선 욕구 및 사회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제33권, 제2호, pp.87-123, 2016.
- [56] J. Fox and M. C. Rooney, "The Dark Triad and trait self-objectification as predictors of men's use and self-presentation behaviors on social networking sit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76, pp.161-16, 2015.
- [57] 김동섭, *셀피의 SNS 노출과 패션 제품 노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 [58] A. S. Dobson and J. Ringrose, "Sext education: pedagogies of sex, gender and shame in the school yards of Tagged and Exposed," *Sex Education*, Vol.16, No.1, pp.8-21, 2016.
- [59] 김연주, "나 이렇게 살아요" 자아 표현 및 전시 도구로서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연출 행위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60] A. Eftekhar, C. Fullwood, and N. Morris, "Capturing personality from Facebook photos and photo-related activities: How much exposure do you need?," *Computers in Human Behavior*, Vol.37, pp.162-170, 2014.
- [61] J. W. Kim and T. M. Chock, "Personality traits

and psychological motivations predicting selfie posting behaviors on social networking sites,” Telematics and Informatics, Vol.34, No.5, pp.560-571, 2017.

[62] B. Van Der Heide, J. D. D’Angelo, and E. M. Schumaker, “The effects of verbal versus photographic self presentation on impression formation in Facebook,” Journal of Communication, Vol.62, No.1, pp.98-116, 2012.

[63] 엄하정, 장진규, 김민지, 김태동, 김현영, 김진우, “자기표현과 사회적 기대감이 지속적 사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 HCI 학회 학술대회자료집, pp.371-377, 2014.

[64] J. R. Dominick, “Who do you think you are? personal home paged and self-presentation on the world wide web,”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Vol.76, No.4, pp.646-658, 1999.

[65] H. J. Schau and M. C. Gilly, “We are what we post? Self-presentation in personal web spac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30, No.3, pp.385-404, 2003.

서 경 현(Kyung-Hyun Suh)

정회원



- 1996년 10월 : University of Santo Tomas(심리학 박사)
- 2000년 6월 : University of Wisconsin, Milwaukee(Post-doc)
- 2001년 3월 ~ 현재 :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관심분야> : 건강심리, 중독, 테이트폭력, 웰빙

저 자 소 개

김 재 희(Jae-Hee Kim)

정회원



- 2016년 2월 :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과(문학사)
- 2018년 2월 : 삼육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문학석사)
- 2018년 3월 ~ 현재 : 삼육대학교 웰빙건강심리연구소 연구원

<관심분야> : 상담심리, 행위중독, 건강심리